

High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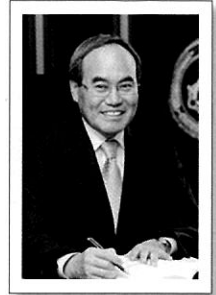
하이라이트

대교협 제19대 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선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 2월 18일 서울 광진구 웨라튼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9대 회장으로 전북대 서거석 총장을 선출했다. 신임 서거석 회장은 총회 직전 열린 대교협 186차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로 추천되어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되었다. 임기는 4월 8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1년이다.

부회장은 사립대 측에서 부구옥 영산대 총장, 국립대 측에서 신항균 서울교육대 총장이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4년 4월 7일까지이다.

서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재정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이끌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교협 설립목적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자율성 신장에 있는 만큼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84차 이사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 1월 14일(월)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제18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2년도 회계 및 업무감사 추진 계획,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 대학 및 대학총장협의회 현안사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학윤리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보선(안), 대학윤리위원회 구성(안), 보수 현실화방안, 규정 개정(안) 등

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한편, 2013년 정기총회는 2월 중순경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교협 역대회장 초청 신년 간담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 1월 14일(월) 노보텔 엠베서더호텔(독산)에서 대교협 역대회장을 초청하여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마련한 대교협의 새 사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4대 조완구 회장(전 서울대 총장), 제8대 윤형섭 회장(전 건국대 총장), 제9대 현승일 회장(전 국민대 총장), 제15대 이배용 회장(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참석하여 대교협 및 고등교육의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2013 대학글로벌현장학습 파견 사전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월 22일(금)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의실에서 2013년 대학글로벌현장 학습 1차 파견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전교육은 2013년 1차 파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 외교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하여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전교육은 참가자의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향후 취업과 연계된 역량강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특강, 외교부의 해외안전관리 교육, 기파견자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인턴십 수행과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파견 학생들은 대부분 3월말에서 4월초에 출국을 시작하여 4~6개월의 인턴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교협 2013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서울 광진구 웨라튼워커히 호텔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15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교협 합인석 회장(경북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무엇보다 반값등록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대학은 수년간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추진하였고, 현재 대학재정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등록금 문제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교협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고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교육을 바꿔보자”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권한이 없으니, 김옥길 전 이화여대 총장이 ‘대학이 발전하려면 대한민국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면서 “대학은 어떤든 자율성을 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세계 국가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공부하러 와야 하는데 아직 우리 교육이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다”면서 “대학의 질이 올라가면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유지하고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 대학 도서관을 둘러보면 명절인데도 도서관이 꽉 차 있다”면서 “‘대단한 나라’다 싶어 뭘 이렇게 열심히 하나 보니까, 상당수가 취직공부,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교육의 많은 것이 바뀌어 나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도전정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졸업생 취업률이 높아지면 (총장들이) 마음이 놓이겠지만 대학교육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세계에서 경쟁하는 아카데미 분위기를 만들면 우리나라에 유학오고, 이렇게 되면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총장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대학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학총장들은 “교육 백년대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책은 합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학의 자율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장들은 “대학이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사회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선 위원장(대구구조개혁위원회)은 기조강연에서 ‘대학의 미래 :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대학재정 악화, 대학 지배구조의 취약성 등 3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전일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가비율 증대 등 대학평가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정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률에 따라 중점을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대학 지배구조가 취약한 만큼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이사회, 총장, 교수, 직원, 학생 영역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지배구조를 공유분점하는 형태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대교협 고등교육재정 대책위원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 정책제언에서 ‘고등교육 자원 GDP 대비 1.1% 확보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자원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자원 확보방안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재원 규모를 법제화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날(2. 19, 화) 대학총장들이 관심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한 7개 특별위원회 분과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제를 연구한 자문교수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신회권 교수(충남대)가 ‘새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방향과 과제’, 대학재정 대책위원회는 김병주 교수(영남대)가 ‘새정부의 대학재정 확충방안과 과제’,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는 함영주 교수(중앙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는 백중국 교수(경성대)가 ‘새정부의 국공립대 발전방안과 과제’, 사학법대책위원회는 김성기 교수(협성대)가 ‘새정부의 사학 발전을 위한 사학법 대책과 과제’, 대학평가대책위원회는 박승철 교수(성균관대)가 ‘새정부의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의 방향 및 과제’, 국제화대책위원회는 김인재 교수(동국대)가 ‘새정부의 대학국제화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